

대학은 장바닥인가?

이 창 순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대학종합평가도 교육개방이다 해서 대학의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대학마다 대학발전위원회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거의 21세기를 향한 대학의 마스터 플랜 등의 거창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오늘날 대학의 문제는 물론 그렇게 거창하게 접근해야 할 큰 문제들도 있지만, 대학 안에서 보면 오히려 자자분한 문제들이 더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대학의 질적 향상은 비단 거창한 문제의식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 내에 널려 있는 자자분한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로서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이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대학은 그 사회를 대표하는 지성의 산실로서 무엇보다도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 어느 곳보다도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면학의 분위기가 존중되는 그러한 자유분방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 우리의 대학현실을 보면서 가장 혐오스러운 부분은 민중다 자유다 하는 거창한 명분 아래 난무하는 대학 내의 시각·청

각의 무질서들이다. 온갖 소리와 언어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지 않는 곳, 이것이 소위 지성의 산실이라는 우리 대학의 현주소인 것이다.

소음공해의 주범은 단연 대학방송이다. 대학은 그 특성상 점심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한편에선 엄연히 4교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4교시 수업을 할 때 가장 괴로운 부분은 때맞춰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대학방송이다. 사랑 타령 유행가들에서부터 선동적인 운동권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불륨이 모자라다 하고 캠퍼스 내에 울려 퍼진다. 그 소리를 이겨내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한참 높여야 한다. 별로 목소리가 크지 못한 나로서는 보통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수업이 끝나고 내 방에 돌아와 몇 차렷가 대학방송국에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러한 방송이 수업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우 당당하기조차 하다. 학교방송이라면 대학의 예산으로써 유지되고 전체 학생들이 주인이다. 그러한 대학방송이 많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어렵게 하는 소음공해의 주범이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대학은 일부 학생들의 방송실습장 내지는 선동매체로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수업시간에 울려 퍼지는 교내 방송에 짜증스러워 하면서도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의 대학에는 그렇게 캠퍼스 전체로 울려 퍼지는 방송이 없다고 하면 놀라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대학방송이란 것이 우리 대학에서는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마치 그것이 대학 본연의 요소인 양 싫든 좋든 받아 들이는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는 듯하다. 나는 방송이 너무 시끄러워 잠시잠시 수업을 중단해야 할 때마다 학생들이 직접 방송담당자에게 진화를 해서 항의하도록 부탁하곤 한다.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비로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교내방송뿐만이 아니라 각 학과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에서 전기 기타 등을 치며 한껏 소리 높여 노래부르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협소한 공간문제로 학생들 과외활동 공간과 강의·연구 공간이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있는 학교도 이 두 공간이 한 건물에 같이 들어 와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강의실에 또는 교수 연구실에 바로 맞붙은 방에서 크게 악기를 두드려 가며 고성방가 노래연습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 바로 앞마당에서 뽕과리를 치며 맘껏 몸놀림 소리놀림하는 소리패들. 그 행위의 무신경과 몰염치가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놀라울 뿐이다.

또한 학생들의 대표단체라는 학생회 역시 대학의 기본적인 활동인 수업에 대한 눈꼽만큼의 존중도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회 행사한다고 수시로 강의동 바로 앞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 상대로 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소란을 떨곤 한다. 개인 의식의 주체, 사회의 양심

자연하는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행동은 어떠한가. 일부 운동권 학생들 중에는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기차를 탈취하는 행동도 불사한다. 또 그들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정부의 조작이니 언론왜곡이니 하는 기성정치의 식상한 표현을 써 가면서 그들의 행동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운동권 학생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성마저도 의심스러운 때가 있다. 개인적으로 특정 사상을 따르고 누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이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통의 공적 공간을 일방적인 이념투쟁의 장으로 유린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의 대학 학생집단은 고도로 조직화된 소수 학생집단들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다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특정 소수집단이 대학 전체학생들의 대표자연해가며, 그들의 교조적인 입장을 전체 학생의 입장이란 듯이 내세우고, 그에 거리를 두는 다른 학생들을 기성·기득집단에 대한 몽매한 동조로서 매도하며, 대학 전체의 분위기를 그들 마음대로 분탕질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다수가 감히 나서지 못하고 또 나서기도 귀찮아서 불쾌함을 감수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화된 소수에 의한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의 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사회는 사회일반에서의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똑같은 잣대를 대학에서 벌어지는 무질서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감히 적용시키지 못하는가. 대학내 특정 소수집단이 그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제지하는 어떠한 시도도 비민주적 폭압정권의 신성한 학원에 대한 공권력 침해 운운하며 그들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방어하는 것이 언제까지 용납되어야 할 것인가. 학문적 성역으로서의 대학이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대학내 부당한 폭력들로부터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소음을 내는 집단들뿐 아니라 그러한 것에 침묵하는 대다수

교수들, 학생들 모두의 문제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수의 권위는 더 이상 전통적인 사제지간이라는 인간적 관계에 일방적으로 토대할 수 없다. 대학에서의 교수의 권위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가진 장래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이 단순히 학위라는 간판취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경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직을 위해 다시 시험쳐서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있는가. 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자신 스스로의 학문적 분야를 끊임없이 닦아 가면서 학생들보다 앞서 가야 한다. 5년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강의노트에 책을 들고 강의실을 오간다면, 오히려 학생에게조차 뒤떨어지는 교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제쳐 놓고 강의 평가 같은 얘기가 나오면 감히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느냐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다.

대학행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처는 기본적으로 다수 학생들의 권익을 보살피야 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정·재정 능력을 일부 학생회 간부나 운동권 학생들에게 집중시킨다. 다수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생처의 예산에서 소수 문제학생들의 활동비나 대주며 결국 일부 학생들과 영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럴 예산 있으면 대학의 각 화장실에 휴지라도 끊이지 않고 비치하는 데 써야 할 일이다. 학생의 복지는 일부 문제학생들의 소주값이나 대주며 학생동향이니 하며 알량한 정보 캐내는 데서가 아니라 화장실의 휴지와 같이 자자분한 데서 시작한다. 대학행정과 관련하여 또 터무니없는 부분은 일부에서 형편없는 성적미달자 학생회 간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다. 학생회 간부를 아마도 노조 상근임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인가. 또한 상대평가나 하면서 성적평가를 엄격히 할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체육특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후한 성적처리 관행도 문제이다. 후진국일수록 체력이 국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더니 우리 대학들은 아직도 체력이 대학능력이라고 보는 듯하다.

우리 대학인들은 교수·학생 모두 사회의 어떠한 부정에도 스스로는 도덕적으로 가장 고결한듯이 오만스럽게 비판하고 진단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관용스럽기까지 하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이중성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이 표류하는 것은 우리자신의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다. 물론 오늘의 대학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의 유신독재체제나 사회일반의 분위기에도 원인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오늘의 대학내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정부를 탓하거나 외부 정치·사회 분위기를 탓한다는 것은 우리 문제에 대한 책임의 회피일 뿐이다. 결국은 우리 대학인의 문제이며 대학인 스스로가 앞장서 나서서 자자분한 것부터 해결해야 더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은 수많은 점으로 채워진 그림이다. 학생, 교수, 행정직원, 기타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자자분한 활동들으로써 대학이라는 전체 그림이 채워진 것이다. 오늘의 대학 문제는 마스터 플랜이 없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학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자자분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결국 대학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맡은 바 작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대학은 그 안에서 실질적인 학문적 정진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학다운 공간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

이창순/서울대 심리학과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사회연구소 사회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조직이론 : 사회조직의 제관점』과, "정보화 사회와 노동의 변화" 등의 논문이 있다.